

# 가람 선생 작품 속 깃든 한글사랑

### 서 교육감, 광복절 맞아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 찾아... “올바른 한글 사용 통해 역사 의식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서거석 교육감이 광복절인 15일 익산 여산면에 위치한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와 가람문학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광복절을 맞아 민족의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온 이병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고 교육감으로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 교육감은 이병기 선생 생가와 가람문학관을 둘러보며 가람 선생의 삶과 작품 속에 녹아있는 민족정신과 한글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에서 태어난 가람 이병기 선생은 시조시인이자 국문학자이며, 한글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시조의 현대적 혁신과 부활을 위한 신운동을 전개하고 고전의 발굴·연구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 교육을 통해 민족의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나 한글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해방 후에는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다.

서 교육감은 “현대시조의 아버지가



서거석 교육감이 광복절인 15일 익산 여산면에 위치한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와 가람문학관을 방문했다.

자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한글을 지켜 온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를 교육감이 돼서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이병기 선생의 한글사랑의 마음을 본받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통해 역사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람문학관 관계자는 “교육감께서 의미있는 광복절에 가람 선생을 기억하고 찾아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면서 “전북의 학생들이 가

람문학관에 더 많이 방문해서 한글을 통해 우리의 민족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이병기 선생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 영선중학교 독도 사랑 동아리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이하 동독우)’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서거석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고창 영선중 학생들, 전북교육청 방문

### 서 교육감 “독도체험관 완공... 독도교육 내실화” 약속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사랑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전북교육청을 방문했다. 이에 따르면 고창 영선중학교 독도 사랑 동아리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이하 동독우)’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서거석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광복절을 맞아 ‘독도는 우리땅’임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독도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영선중학교 학생들은 지난 10여년 간 동독우의 활동을 소개했다. 동독우는 그동안 교내에서 독도 알리기 캠페인, 독도 벽화 그리기, 독도 계단 띠 만들기, 독도 골든벨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19년에는 독도를 방문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산-독도신문’, ‘물릉도 여행 홍보지’를 배포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전국의 다양한 독도 관련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전국 중·고 독도체험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전국의 독도체험관을 견학하면서 오류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부터 함께하고 있는 이재환 지도교사는 “역사 외국의 가장 큰 적은 일본이 아닌 우리들의 무관심”이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도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싶어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독도를 사랑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동독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키우고 주한국의 역사 외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학생해양수련원 내에 독도체험관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독도의 자연·역사·체험 공간 등을 조성해 독도교육을 내실화하고, 전북의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9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 발표

###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총 555명 정기인사 단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난 12일 2022년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발표에 따르면 직위별로 승진과 전직, 전보, 정년퇴직 등을 포함한 총 555명의 인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홍덕중학교 이만수 교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전주전주중학교 박경희 교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양곡초등학교 김복희 교장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정읍샘고등학교 최금희 교장이 임용됐다.

또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전주효천초등학교 신병기 교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진안조림초등학교 김호경 교장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안천고등학교 김승기 교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적삼초등학교 허윤종 교장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용포중학교 남궁세창 교장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구이초등학교 장기선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이와 함께 직속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 원장으로 문병기 학사수련원 학생수련부장을, 과학교육원 원장으로 김정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으로 유승오 전주솔빛중학교 교장을 발령했다. 이어 학생수련원 원장으로 정찬 인성건강과 과장, 학생해양



수련원 원장으로 이상덕 익산한빛초등학교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본청 과정으로는 △학교교육과장에 주현화 군산진포중학교 교장 △교원인사과장에 이성기 진안초등학교 교장 △교육혁신과장에 정혜영 오봉초등학교 교장 △인성건강과장에 이서기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미래인재과장에 이강 전주용와초등학교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그리고 9월 1일자 교장·원장으로 승진을 하는 사람은 38명, 교감·원감은 39명이다. 또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은 모두 143명이다.

더불어 교직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교사는 모두 30명(유치원교사 10명, 초등학교사 20명)으로, 이들은 각 시·군교육지원청의 인사발령을 통해 근무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역량 중심의 인사를 통한 기초·기본교육 강화 및 학교와 교육청 간의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과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8일과 29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평생교육원, 인문학특강 마련

### 19일 이상동 소장 초청특강... 지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평생교육원 인문학 특강은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역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특강은 이상동 고객경영연구소장을 초청해 오는 19일 오후 3시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인

생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이상동 소장은 행복한 노년의 비밀과 행복에 관한 통설, 행복한 노년으로 살기 위한 6가지 실천법 등을 전할 예정이다.

인문학 특강은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c.jnu.ac.kr/>)와 전화(063-288-0022)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일환

### 군산대 생명과학과 대학원생, 해외기관 방문연구 수행

군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김상진 손주형 씨(대학원 박사과정)는 국립생물자원관의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최근 네덜란드와 불가리아에서 약 3주간 방문연구를 수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고치벌과(Braconidae) 분류학자 Cornelis van Achterberg 박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방문단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생물다양성센터(Naturalis Biodiversity Center)에서 방문연구를 수행했고, 방문기간 중 Collection manager인 Fradrique Bekker의 도움을 받아 박물관에 소장 중인 장승입고치벌아과(Alysinae)와 진디고치벌아과(Aphididae)의 표본 비교검증 및 동정, 사진 촬영 박물관 내 소장 문헌 조사, 종 발굴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해당 분류군에 대한 채집 및 동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고, 연구소 박물관에 소장 중인 100여 점의 샘플과 군산대 표본관 소장 표본의 교환도 이루어졌다.



이후 불가리아 자연사 박물관에 방문해 Dr. Ivaylo Todorov의 도움으로 박물관 내 소장 중인 미동정 표본 동정, 박물관 내 소장 샘플에 대한 국내 샘플 비교 동정이 이루어졌고, 인근의 바나 지역과비토사 지역에서 채집 방법 및 트랩 설치에 대한 방법을 전수 받았다. 이들은 지도 중인 김효종 교수는 “이번 방문 성과로 국내 기록되지 않은 고치벌을 다수 발굴하고, 신종·미기록종 및 계통분류 논문 출판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 “9월, 학부모교육에서 만나요”... 도교육청, 내달 15일부터 마련

### 오늘부터 신청 가능

전북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다채로운 9월 학부모교육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자녀와 공감하는 건강한 성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놀이와 책이 함께하는 동화랑 연극이랑’, ‘마음에 꽃씨를 심어요’ 등 6개 프로그램을 9월 중에 운영한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래사회 올바른 디지털 사용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 추억 영상 만들기 미디어 제작을 직접 실습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6일에는 건국대 손석훈 교수의 디지털 시대 미디어와 현대인의 삶, 22일·29일에는 박미영 한국IE협회 공동대표의 ‘뉴스를 활용한 전략적 글쓰기’, 10월 6일에는 김차병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의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와 메타버스 세상’, 10월 8일에는 완주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접근 및 제작 등이 하반기에 진행된다.

놀이와 책이 함께하는 동화랑 연극이랑 교육은 8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는 △문제력을 키우는 그림책 감상놀이 △동시 활용 말 놀이 △동화 스토리텔링과 신체표현 활동 놀이 △언어 능력을 키우는 다양한 극 놀이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은 17일 고창운곡박물관에서 고인돌유적지에서 낚싯배를 통해 생각하는 생태전환교육으로 생태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체험교육이다.

이 외에도 자녀와 공감하는 건강한 성교육, 9월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마음에 꽃씨를 심어요’ 등이 운영된다.

한편, 각각의 프로그램은 16일부터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http://parents.je.go.kr/main/main.j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